

빛·기억·일상·애도...오월 넘어 미래 향한 예술적 제언

1980년 광주 오월을 넘어 인류의 상흔과 기억을 다음 세대를 위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강하미술관에서 막을 올린 국제오월특별전시 '미래의 숨결, 무등의 오로라' 주제

이매리·정정주·카버바우매뉴미 등 한국·캐나다 예술가들 작업 조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캐나다 예술가들의 작업을 함께 선보이는 전시로 한국 작가로는 이매리·정정주 작가가, 캐나다에서는 킨가이트 이누이트(웨스트 바핀 코어퍼레이티브)의 작가 카버바우 매뉴미·닝게오 시악 애슈나·새마이유 아커석이 '빛·기억·일상·애도'를 주제로 미래를 향한 예술적 제언을 시각 이미지로 구현했다.

캐나다 작가들의 작품은 낯설지 않다. 지난 2023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캐나다 파빌리온 '신화, 현실이 되다'에서 선보였던 캐나다 북부에 거주하는 이누이트(에스키모)족 작가들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에스키모로 알려진 이누이트 족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2,500km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곳에는 예술가 커뮤니티 '웨스트 바핀 코어퍼레이티브'가 있다.

이누이트 예술은 1940년대 캐나다에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누이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59년 웨스트바핀 협동조합이 설립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누이트족의 예술성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선대에서 이어져 내려온다. 이누

이강하미술관 국제오월특별전시

'미래의 숨결, 무등의 오로라' 주제
이매리·정정주·카버바우매뉴미 등
한국·캐나다 예술가들 작업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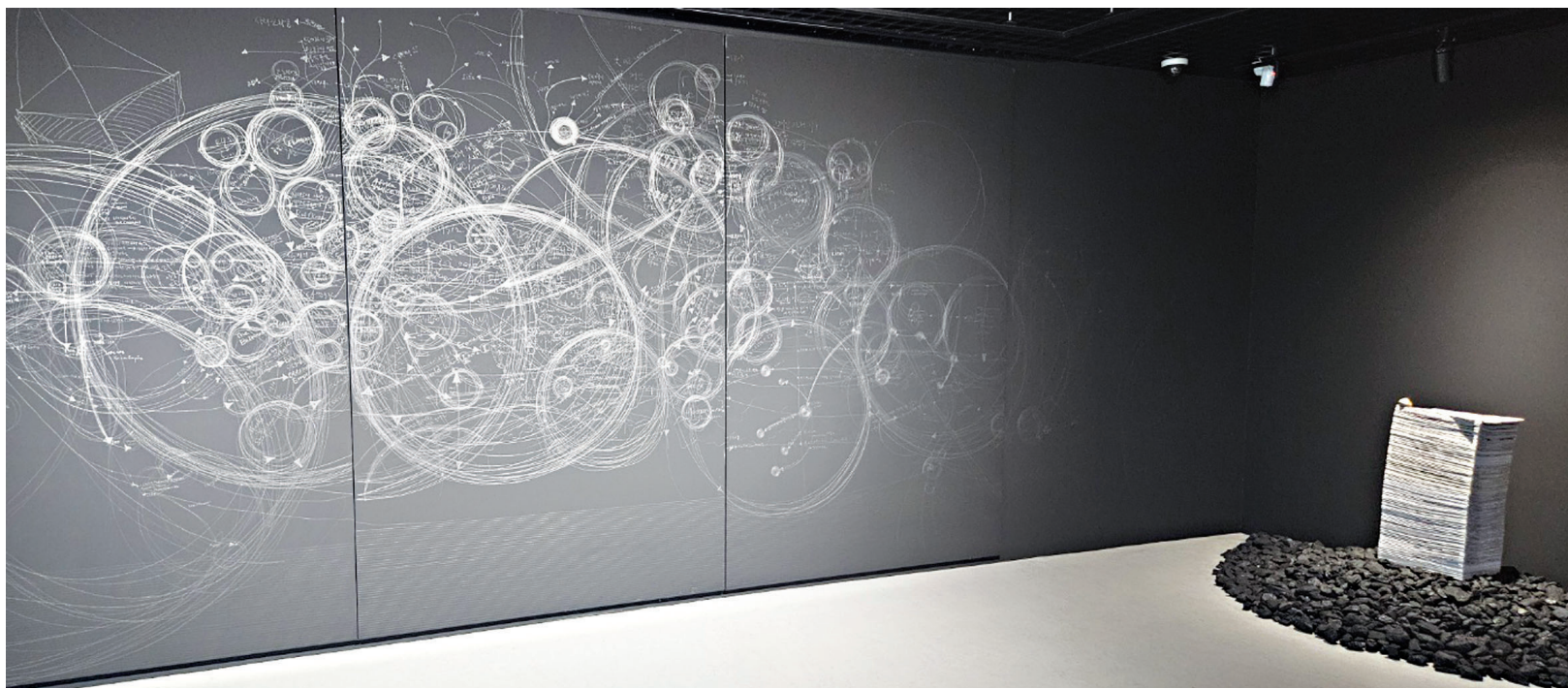


카버바우 매뉴미 작 '무제'

이트어 자체가 상형문자에 가깝다 보니 그림은 세상과 소통하는 도구이자 역사를 기록하는 수단이다. 전시 작품의 대다수가 별다른 제목이 없이 '무제'로 불린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카버바우 매뉴미의 '무제'. 동물을 의인화해 그린 작품이다.

닝게오시악 애슈나의 '새들 Birds'도 눈길을 끈다. 매끄러운 북극의 돌에 놓고 있는 동물이



이매리 작 '7천개의 별과 약속의 땅, 시대사적 사건들의 드로잉'과 '항상성'

묘사돼 있는데 이는 그가 북극의 야생 동물과 육지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중진 작가로 알려진 이매리 작가와 정정주 작가도 이번 전시에서 뛰어난 통찰과 예술적 감각으로 광주의 오월을 위로하고 승화시킨다.

이매리 작가는 삶과 죽음, 민족과 국가의 생성·소멸 등 인류 문명의 흐름과 생명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아 작업해 왔다. 광주의

고려인마을 등 새로운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작업의 영감을 얻은 그는 최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개인전을 열고 북페어에도 참여하면서 전쟁사에 대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정정주 작가는 건축 공간과 빛의 관계에 주목한 미디어 및 설치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독일 유학 시절 경험한 유럽 특유의 건축물이 지닌 견고한 표피를 뚫고 들어오던 빛은 곧 그에게 낯선 땅에서 마주치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응

시의 시선이자 존재의 재확인이다. 작가는 공간 속 빛의 인상을 토대로, 구조물과 빛을 결합한 조형 작업을 통해 시선의 권력과 공간의 심리적 관계를 재해석한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참여작가들과 직접 만나는 '작가와 대화'는 오는 18일 열린다.

전시는 7월31일까지이며 일 1회 도슨트를 운영한다. 네이버 및 유선전화(062-674-8515)로 사전예약 하면 된다. 글·사진=최진화 기자

피보다 진했던 광주의 형제들을 위한 기도

광주시향 5·18음악회 '형제들' 리뷰

광주시립교향악단 이병욱 지휘자가 취임과 동시에 올 한해 레파토리를 설명할때 가장 관심을 끌었던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음악회였다. 예고된 프로그램이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이었기 때문이다.

이병욱 지휘자는 브루크너 탄생 200주년이던 2024년 인천시향과 함께 브루크너의 교향곡 7번을 연주해 한국 브루크너협회로부터 '2024 한국 브루크너 음악상'을 수상, 국내에서 브루크너를 가장 깊이 있게 해석하는 지휘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그가 광주시향과 함께 선보일 브루크너에 관심이 쏠렸다.

취임 연주로 브루크너를 고려하기도 했던 이 지휘자는 5월을 선택했다. 광주시향과의 호흡을

어느 정도 맞춘 시기, 그리고 광주시향의 가장 중요한 무대이기도 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브루크너를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이병욱 지휘자는 광주시향이 지난해 브루크너 교향곡 7번을 연주한데다 5·18에 대해 아직까지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미완성이라고 생각, 미완성 교향곡인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을 만나면서 이병욱 지휘자가 5·18 45주년 기념음악으로 선택한 이유가 느껴졌다. 사실 클래식 초보자들이 브루크너를 듣기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걱정도 많았지만 광주시향과 이병욱 지휘자의 호흡이 만들어낸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은 가슴깊은 울림을 줬다. 그

동안 사진으로, 글로, 흑백의 짧은 영상으로 봐왔던 1980년 5·18 열흘간의 향쟁이 선율과 타고 흘러가는듯했다. 미완성으로 3악장에서 끝난데다 앙코르도 없어 연주 그 자체가 더 5·18과 어울렸다.

이날 공연 서막은 파르트의 '형제들'이었다. 수도원의 예배당으로 향하는 수도사들의 행렬이라는 설명대로 현악 오케스트라와 타악파트로 이뤄진 연주는 80년 5월의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행렬을 연상케했다.

이어진 브루크너 교향곡 9번. '장엄하고 신비롭게'라는 지시로 시작된 제1악장은 처연했고, 현열을 하고 주먹밥을 나눠던 평화로운 5·18 대동세상이 떠올랐다. 제2악장 '스케르초, 가볍고 쾌활하게'는 기이할 정도로 강렬하고 거칠고 역동적이라고 했는데 마치 광주시민들이 계엄군



광주시립교향악단

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던 시위 현장이 펼쳐지는 듯 했다. 제3악장은 신성하고 숭고했다. '아다 지오:느리고 장중하게'라는 지시답게 폭발적이면서 동시에 웅축된 격정과 영묘한 고요 사이를 부단히 오갔다. 장엄한 선율 사이사이로 5·18 그 이후의 광주의 모습이 보이듯했다.

마지막 악장은 브루크너가 이 곡을 '사랑하는 신(Dem lieben Gott)'에게 헌정한 것처럼 신을 향한 마지막 기도를 올린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광주시향의 브루크너 교향곡 9번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광주의 형제들을 위한 기도

였다. 미완성 곡이기에 그 마무리를 청중의 해석에 맡기며 여운을 남긴 이 곡을 통해 역사적 상처를 마주했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짐하게 만든 시간이지 않았나 싶다.

지난 5월 한달간 80년 5월을 기억하는 수많은 전시와 공연, 문화행사들이 열렸다. 그리고 그 5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이 광주시향의 브루크너 교향곡 9번, 끝내 완성되지 못한 장엄한 이별의 인사였기에 더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 같다. 최진화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3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 12실과 부대시설

2F_SCREEN GOLF

품격높은 광주 최고 수준의 GOLFZON PARK 시스템 스크린 11실과 부대시설

Fun it, us

1F_CAFE & LOUNGE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B1F_BOWLING

고급스릴과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